

제16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5. 11. 24(화) 10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연규, 김윤섭, 박상희, 박춘호, 유인수
이성옥, 이성훈, 이영수, 이용철, 진철문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6건 20작품(조각 18, 부조 1, 회화 1)
[신규 20작품]
- ◆ 결 과 : 승인 20작품

□ 위원 발언 내용

<위원장>

- 2015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. 금일 심사위원 10명 중 10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.

거수 결과 토론을 먼저하고 점수를 채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.

- 구조 역학 전문가가 다음에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.
- 조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구조도 다 볼 수 있습니다.
- 제가 건축가인데 건축에서 구조역학 부분은 대부분 검토가 가능합니다. 굳이 전문가를 따로 필요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. 건축사 국가시험에 구조부분이 과목으로 들어갑니다.

- 네.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. 오늘은 양이 좀 많습니다. 1번부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먼저 보시고 같이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
- 1번을 한꺼번에 먼저 보고 문제 있는 것만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워낙 건수가 많아서..
- 1-1번은 작품을 만지고 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데 어떻게 타는 건가요? 미끄럼틀인데.
- 아래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어린이들을 위한 거죠
- 포토존 역할을 하는거죠
- 혹시나 위에서부터 타내려오는 거는 아닌가 했습니다.
- 제 생각에는 1번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 보다는 전체가 하나의 가족단위 놀이라는 테마를 작가들끼리 협의해서 동일한 거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여 심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.
- 1-12번은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손이 너무 수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식인데 각도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각도를 낮추는게 어떨까요
- 만약 통과가 된다면 조건부로 자연스럽게 좀 낮추는 건 가능해 보입니다.
- 각도를 높혔을 때는 무게는 괜찮습니까?
- 보통 안에 구조물 등이 들어가서 이상은 없습니다.
- 누워 있는 게 가위바위보 이미지 개념과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옆으로만 누워면 될 거 같습니다. 좌대가 길쭉아요
- 설명에 각도를 수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

- 화강석 부분은 눈이나 비올 때 미끄러지지 않게 거칠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.
- 11번과 13번은 작가가 같은가요?
- 네 같은 작가입니다.
- 11번은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을 거 같은데요. 줄이 없어도 줄다리기 이미지가 나와서 상상의 여백도 있는데요. 브론즈가 특성상 끊어질 거 같은데요. 아이들이 매달릴 수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. 재료를 스테인레스로 바꾸던가 아예 없애던가 해야 할 거 같은데요. 오히려 상상할 수 있어 더 좋을 거 같습니다.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.
- 전체를 없애는 것은 작품을 손상시키는 거 같고 가운데 부분만 없애는게 나올 거 같은데요.
- 줄이 끊기는 부분이 생기면 더 위험할거 같은데요. 아예 처음 작가 의견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다른 재료로 해 주는 게 어떨까요. 굵기를 봐서는 브론즈를 전체로 채우지는 않을텐데요. 안을 철근이나 스텐으로 넣어 보강할거 같은데 파이프 굵기는 안 나와 있네요.
- 사람 높이가 1m10인데 줄은 6~70일텐데 아이들이 다칠 수 있을 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.
- 약간의 접점을 찾는다고 하면 아이들을 가까이 좁히면 어떨까요.
- 줄의 강도를 다른 재료로 보완을 하고 거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요
- 이 작품은 가운데 끈을 묶은 느낌도 살렸는데 이걸 자르는건

좀 안 좋을 거 같고 그렇다고 줄을 자르는 건 더 위험하고 강도를 강하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.

-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
- 중간중간 아이들이 있으니까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.
-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
- 그럼 그 작품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.
- 공간개념에서 봤을 때 1-1번 14페이지를 보면 비교적 스케일을 맞게 그려 놓은 거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옆에 계단이 있고 그 오른쪽에 미끄럼틀이 들어가는데 공간에 비해 구조물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림 상에는 옆의 공간이 넓게 보이는데 건축입장에서는 작품의 위치가 공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 설치하고 나면 햇빛도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안될 거 같습니다. 에스컬레이터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계단이 있고 거기에 또 미끄럼 조각을 넣어놓으면 공간의 비례감이 맞지 않습니다.
- 말씀하신 평면도상에 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21페이지에 중간 이상이 바닥인데요 다운이 되어서... 공간에 큰 지장은 없어 보이는데요. 저는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화강석, 대리석 벽면이나 바닥의 느낌에 비해 미끄럼틀의 색이 공간에 활력을 주어 좋은 거 같습니다.
- 그러기에는 공간이 너무 작은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.
- 선큰가든 워터파크이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색상과 작품의 특성이 잘 어울려서 그런 공간의 부족함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큰 덩어리가 아니라 물 흐름처럼 보여서 막혀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
- 229페이지 보시면 1-13번 작품에 아래 그림을 보면 구멍이 뚫

린 듯이 보이는데요

- 그림자입니다.
- 말씀 나온 김에 21페이지에 전면부만 있는데 뒷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뒷면을 밋밋하게 하면 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조건부로 통일성을 연결해주면 좋겠습니다.
- 그리고 슬라이드 끝부분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는 것보다 코너 안쪽으로 끝을 굴리는 식이 되어야 걸리지 않을 거 같습니다.
- 분명히 아이들이 앞에 있는 치타를 타고 올라가려고 할텐데 올라갈 때 걸리지 않도록 라운딩으로 처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.
- 라운딩이 아니라 사선으로 내려오면 될 거 같습니다. 1-1과 1-2는 다른 곳에서 전시된 걸 본적이 있는데요 검증이 되었던 작품입니다. 작가본인이 부속품까지 직접 만든 작품들이라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거 같습니다.
- 건축주와 전체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.
- 전체 컨셉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두 작품을 빼는 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야할 거 같습니다.
- 건축주가 이런 컨셉에 맞춰서 작가들을 찾은 거 같습니다.
- 그림 1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로5가에 설치되는 2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총무로라 그런가 영화 속 장면 같습니다. 무난한 작품이어서 위험요소만 없으면 넘어가도 될 거 같습니다.
- 크게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.
- 그림 다음 3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이게 매달려있을 때 지속적으로 괜찮습니까?

- 이런 경우 통과된다면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는 걸 조건으로 붙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
- 지상지지대는 없고 와이어로 매달려 있네요
-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늘어지는 것들을 염두 하고 계산을 해야 할 겁니다.
- 미관상으로는 괜찮은거 같은데 바람이나 풍향등도 고려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.
- 풍선재료가 알루미늄인가요?
- 아뇨 스테인레스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나갈거 같습니다.
- 공간에 풍선으로 떠있는 식이로 와이어가 상하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연결벽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.
- 14페이지를 보면 벽쪽은 걱정을 안하는데 빨간 구슬의 샘플을 보면 용접을 하면 스테인레스가 전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얇아질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구조보강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
- 작가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거라고 봅니다.
- 통과조건으로 구조기술사 확인필이라고 하죠
- 그럼 4번 뉴 골든타워로 넘어가겠습니다.
- 좋은데요
- 재질은 돌인데 다이내믹한 행동을 표현하기에 색이 좀 어두워 보입니다. 기단석도 너무 강조가 된거 같구요.
- 기단석을 좀 낮추면 어떨까요?
- 제가보기엔 색이 오히려 하단이 오히려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

다. 높이도 괜찮습니다.

- 화강암 같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더 밝지 않나요?
- 마천석, 고흥석 등 다양한 돌들이 있는데 작가가 색을 맞추어 제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CG상으로 어둡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.
- 이 작품은 무난한 거 같은데 전 그것보다 두 번째 작품 해가 뜨는 일출인거 같은데요. 녹색 대리석이군요. 다른걸 요구하기엔 가격이 좀 낮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무난한 거 같습니다.
- 학을 표현하는 걸 봤을 때 작품성을 크게 봐야 하는데요. 작가만의 색깔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
- 일반적인 방식이죠.
- 자기방식으로 학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체 컨셉도 좀 진부하구요. 독창성에 있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
- 저는 좋게 보는 작품입니다.
- 사견이지만 이게 학이라고 한다면 몇 마리는 좀 빼는 게 어떨지.. 너무 많아서 공간감이나 유지를 위해서 좀 많아 보입니다. 가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무난한 정도입니다.
- 4번은 의견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숲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스테인레스를 레이저로 자른 거 같은데요. 잘라진 모서리 면을 라운드로만 처리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텐데요. 조명이 들어간 게 더 좋네요.
- 조금 걱정되는 게 작품1, 2의 위치가 아파트 저층부의 전망을 가리지 않나 싶은데요.
- 19페이지 보면 실제 현장 이미지가 있는데요. 1층이 높아서 걱

정할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.

○○○ 6번 작품 보겠습니다.

○○○ 요즘 표절의 문제도 있으니 작가 확인은 위원장님이 할 수 있으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.

○○○ 이 작품은 모작이 아닌 것 같습니다.

○○○ 동그란 모양을 조각하기는 쉬우나 이것처럼 하나씩 크랙이 가 있는데 그 느낌을 표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

○○○ 건축면적상 위치가 이곳 밖에 안되나요? 이 작품은 사방을 둘러보면서 보는 작품인데 1/3이 없어져 버리네요.

○○○ 오피스텔이 작품을 설치할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.

○○○ 오히려 벤치 있는 부분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. 장소가 좀 아쉽네요.

<위원장>

○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각자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.

<채점 진행>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○ 오늘은 20개 작품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여기서 회의 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 1-1, 1-11, 1-12, 3번은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하고 이중 1-12번은 각도를 수평으로 수정 설치 후 구조검토 관련하여 심의위원 중 한 분을 지

정(진철문)에게 자문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심의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